

화순군 불법 주정차 차량 노란풍선 ‘경고’

화순군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풍선달아주기 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7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골목 입구,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 문구가 새겨진 노란 풍선을 달아주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에 앞서 풍선달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교통난이 심각한 화순읍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배영재기자 byj@



8일 화순읍 화순을 도로에 불법 정차된 차량에 ‘불법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새겨진 노란 풍선이 매달려 있다.

장성군 독서동아리 활성화 나섰다

지도강사·모임장소 제공... 회원들 다양한 혜택

장성군이 주민 독서문화 정착과 책 읽는 열로우시티 장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군민 독서운동을 펼친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토론을 갖기 위한 독서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한다. 독서동아리는 독서회원 및 지도강사를 모집하고 고전문학, 영화감상 등을 주제로 마을·직장·기관·단체 분야별로 구성해 내년 1월부터 월 1회 이상 자율적인 모임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전문학 분야는 고전문학소설을 읽고 소감을 나눠 제시된 발제에 대해 집중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영화감상 동아리는 영화 원전을 읽고 영화 관람을 통해 독서문화의 폭을 넓히고 지식을 공유해 지혜를 얻는 방식

으로 운영된다. 군은 독서동아리 활동을 높이기 위해 독서지도 강사와 모임장소를 제공하고, 동아리 회원에게는 군립도서관 ▲대출권수 상향 ▲대출일수 연장 ▲희망도서 4권까지 신청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독서동아리에 관심 있는 군민은 군립도서관 홈페이지(www.isah.net)를 참고하거나 군립도서관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민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물론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행복과 수를 높이고 공적으로는 열로우시티 장성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군이 만든 화순유통 파산 직전... 화순이 시끌

파산위기에 내몰린 (주)화순유통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일부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 파산 원인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순군과 농민, 영농법인 등 5000여명이 출자해 설립한 (주)화순유통은 지난 2009년 4월 80여억원의 출자금으로 설립됐으나 부실 경영, 도덕적 해이, 사기사건 등으로 자본 잠식 상태다. 화순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순군이 대주주인 (주)화순유통에 대해 전 임직원과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며 “검찰이 파산원인 등에 대해 새로운 증거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5000여명 80억 출자 설립
부실 경영 자본잠식 상태
군, 조사위 구성 11건 고소
분식회계 등 수사 급물살

화순군은 민선 6기 구충근 군수 취임 후 화순유통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회사의 부실 경영에 관련 혐의자들을 (주)화순유통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2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총 11건을 고소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상규명 후 회사 진로 결정’이라는 구충근 군수의 의지에 따라

법조인, 군의원, 소액주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해 11월부터 활동해 왔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조곡 사기사건, 각종 민사소송, 복잡한 채권·채무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간보고를 통해 각종 의혹 규명과 혐의자들을 일괄배격할 것을 화순군에 주문한 상태다. 특히 물품 납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복잡한 순차 거래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수량을 수차례 짜 맞추는 등 당시 유통회사 직원들의 분식회계 행위와 사문서 위조 정황 등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충근 군수는 지난 1일 화

순군의원과 의 간담회에서 “원활한 수사 진행을 돕기 위해 군과 유통회사가 TF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부에선 화순유통 청산에만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검찰은 화순군의 고소 사건에 대해 파산 원인 등에 대한 증거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을 경우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화순유통 파산 위기의 핵심 원인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으로 버무린 사랑의 김장김치 화순군여성단체(회장 최순님) 회원 230여명은 최근 화순농협에서 3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 1100세대에 전달했다. <화순군 제공>

유해동물 방지단 운영 화순경찰 멧돼지 포획 농작물 피해 크게 줄여

화순경찰이 유해동물 피해방지 봉사단을 운영해 농작물 보호 등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멧돼지와 까치 등 유해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관내 협촌 소우야 30여명으로 구성된 ‘유해동물 피해방지 봉사단’을 운영, 멧돼지 130마리와 고라니 20마리 등 150마리를 포획했다. 유해동물 피해방지 봉사단 운영 전인 올 상반기에는 유해동물 포획수가 40여마리에 불과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은 수확기를 앞둔 과수원 과수 및 벼 등 농작물을 망치는 유해동물로, 피해방지 봉사단이 운영된 올해에는 지역 내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어든다는 게 지역 농민들의 말이다. 화순경찰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화순군의 협조를 받아 유해동물 피해방지 봉사단을 구성·운영해 왔다. 정정재 화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해동물 피해방지는 물론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절도 피해 예방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기자 byj@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디딤돌 사업 추진

14일 문화회관 사업설명회

담양군은 8일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2016년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을 설명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담양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은 기존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단계별 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디딤돌 사업은 마을공동체 부문(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자치위원회)과 소규모공동체(주민 3인 이상 창업 희망 동아리 및 단체모임)으로 나뉘며 1단계(교육)→2단계(역량강화사업사

업)→3단계(사업기반조성지원)→4단계(희망날개사업)로 진행된다. 1단계(장안학교교육)는 기초실무분야와 그룹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이 이뤄지며, 2단계(역량강화사업)는 장안학교 수료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에게 역량강화자금(300만원)이 지원된다. 3단계(사업기반조성지원)는 사업기반조성자금(2000만원 한도)이 지급된다. 단계별로 진행된 사업을 통해 역량을 갖춘 공동체에 한해 정부공모사업과 연계한 4단계(희망날개사업) 사업이 완성되며, 사업유형은 체험소득과 공간환경, 생활문화, 일자리창출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목적이면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올 적벽 투어 3만명 돌파... 화순 지역경제 효과

58%가 외지 관람객... 대표 관광상품 자리매김
화순적벽 버스투어가 화순관광을 살리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 한해 적벽 버스투어를 통해 화순을 관광한 인원은 총 3만 23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37%, 영남권 17%, 충청권 4% 등 외지 관람객이 58%를 절반을 넘어섰다.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민선 6기를 맞아 광주시와 화순군이 상생 발전을 첫 사업으로 적벽을 국민과 공유하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개방하기로 합의해 이뤄졌다. 지난 2014년 10월 적벽 버스투어가 시범적으로 운행된 뒤 올해는 3월 21일 첫 투어를 시작해 지난 11월 29일까지 총 94회가 운행됐다. 화순군은 관광객들이 적벽을 안전하고 가깝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대와 망원경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적벽 버스투어가 지

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화순 관광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근 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벽 버스투어는 투어를 희망하는 날 2주일 전 오전 9시부터 화순군 적벽 투어 홈페이지(http://tour.hwasun.go.kr)에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의 안전 등을 위해 투어가 중단된다. /화순=배영재기자 byj@

투데이 경매 부동산 경공매 추천물건

광주 남구 주월동 대지 남구청에서 봉선동 방향 대로변 상권우수 신축 건물 부지로 적합 명원 도시형생활주택 추천 대지 684㎡ 건물 295㎡ 감정가 16억 8천 최저가 11억 8천

광주 서구 마북동 주유소부지 광주아울렛 인근위치 투자적합 대지 1132㎡ 건물 316㎡ 감정가 9억 9천 최저가 6억 9천

광주 광산구 월계동 상가주택 주택가 지역 십거리 코너위치 지상 1층 ~ 지상 3층 대지 218㎡ 건물 380㎡ 감정가 3억 최저가 3억

광주 광산구 산정동 대지 현 운전 면허 연습장 대지 6655㎡ 건물 362㎡ 감정가 27억 6천 최저가 19억 3천

본건 위치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대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위치 대지 21,426㎡ 감정가 76억 9천 최저가 76억 9천

투데이옥션 이현석
010-9963-6345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지리산 노블랜드 실버타운

회사 보유분 매각

공급 가격

93㎡ [89,600,000원
 [용자 5,000만원

60㎡ [57,600,000원
 [용자 3,000만원

지리산, 섬진강, 백운천 그리고 힐링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관리회사 (주)노블랜드 호텔
본양회사 한국토지경매주식회사

☎ 1522-3396

NAVER **드림꽃도매** 농산물 전문도매

드림꽃도매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